

여수시, 제10회 여수음악제 7월 16일 예매 시작

정명훈·선우예권·라포엠… 10주년 더욱 풍성한 무대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되는 '섬박람회'와 함께하는 제10회 여수음악제의 티켓 예매를 오는 16일부터 진행한다.

10주년을 맞은 여수음악제는 지난해 개막연주회만 이끌었던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올해는 개막과 폐막연주회를 모두 지휘하며 한층 깊어진 무대를 선보인다.

개막연주회에서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세현과 협연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폐막연주회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음악학교 학생들이 거장 정명훈과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합동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정상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의 특별무대 ▲지휘자 백윤학의 시네마 명곡 오케스트라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수 전역을

클래식 선율로 물들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열린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임산부와 어린이가 있는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공연으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물할 예정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여수음악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맞물려 열리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거장들이 펼치는 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객들이 클래식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여수음악제' 티켓은 NOLET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할인 혜택과 청소년 특별 우대석도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여수음악제 사무

국(☎061-681-5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이번 음악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인 연주자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무대를 확대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방침이다.

음악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클래식 문화 저변 확대에도 힘을 예정이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

/이유빈 기자



제10회 여수음악제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순천, 여름방학 가족뮤지컬 '슈퍼거북, 슈퍼토끼' 개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 '슈퍼거북, 슈퍼토끼'를 7월 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원작 동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웰메이드 가족뮤지컬이다.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기반한 상상력으로 풀어내, 출간 이후 줄곧 아동 도서 부문 상위권을 지켜온 화제작을 무대 위로 생생하게 구현했다.

공연은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는 정말 행복했을까?', '거북이에게 진 토끼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한다. 단 한 번의 경주로 운명이 뒤바뀐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낸다.

/이유빈 기자

광양청년꿈터, 광양시가족센터와 연계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성료

광양청년꿈터(센터장 배혜금)는 최근 광양시가족센터의 1인 가구 지원사업인 'S.O.L.O. 서로'와 연계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광양청년커넥트 프로그램 '코드공예(수링클공예, 레진아트 등)*'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은 지금, 연결 중'을 주제로 지난 3월 진행된 1회차 '두바이존득쿠키 만들기'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교류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코드공예'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취미·여가 활동과 함께 광양시 청년정책과 광양청년꿈터의 공간 및 지원사업을 안내해 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는 '2026년 광양청년꿈터 운영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광양청년꿈터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혜금 광양청년꿈터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역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접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가와 정보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청년꿈터는 '광양청년커넥트'를 비롯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취·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갤러리 107 진영대 나전칠기 개인전 개최

곡성군이 운영하는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영대 작가의 나전칠기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영대 작가는 곡성군 죽곡면 출신으로 17세에 나전칠기에 입문해 한국 옻칠공예대전 특선, 장려상, 동상 등 다수의 공모전 경력을 쌓고 문화재수리기능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정수화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진 작가는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업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두운 칠흑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자개들을 갈고 다듬으며 수십 번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단단해지는 옷칠은 나에게 예술을 넘어 삶을 안내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이번

전시가 은은하게 피어나는 자개의 빛처럼 우리 삶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의 시간과 실력으로 빛어낸 뛰어난 작품들로 우리 지역에서는 감상하기 힘든 나전칠기 전시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시를 소개했다.

한편, 갤러리 107은 곡성을 중앙로 107-1에 있으며 전시가 열리는 기간 동안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군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농작업 안전 365 캠페인 본격 전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구례군이 구례소방서·경찰서와 농업인의 인명 보호와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농작업 안전 36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내 유관기관인 소방·경찰과 농업기술센터가 뜻을 모은 터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적인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막고자 추진됐다.

행정당국은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지역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이 자리에서 농기계 안전 활용법을 비롯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요령,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한만호 구례소방서장은 "농번기에 발생하는 농기계 관련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전후 안전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자세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작업 중 사고 위험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찰·소방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심선섭 기자

